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 | | | |
|------|----------|------|---------------------------|
| 이름 | 박상* | 학번 | |
| 파견국가 | 필리핀 | 파견도시 | 마닐라 |
| 파견대학 | 라살아라네타대학 | 기간 | 2016. 7. 23(토) ~ 8. 20(토)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p>위치는 택시나 지프니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가 붙어있어서 학교가 꽤 크고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 외에도 여러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한국인들이나 가드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가까이 있고 학교 내에 카페테리아가 몇 군데 있어서 간단히 간식을 사먹거나 구경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호스텔은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다니기 편하고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LANGUAGE 센터는 학교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있어서 멀지 않습니다. 센터 안에서는 EOP라고 해서 영어만 사용해야 하고 한국어 사용했다가 걸리면 호스텔 내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방과 후 한 시간 정도 보충 학습을 해야 합니다.</p> |
| 수업 | <p>수업은 1대1수업과 소그룹, 대그룹 수업 세 가지 방식이 있고 하루에 멘투맨 수업 세 시간, 소그룹 두 시간, 대그룹 세 시간 총 여덟 시간입니다. 반은 입학식 때 테스트를 봐서 나뉘지는데 다른 학교와 섞이지만 대부분 그룹 사람들과 친해져서 수업 분위기는 좋습니다.</p> <p>선생님들 중에 영어 발음이 약간 필리핀 특유의 발음이 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크게 지장은 없었고 제 담당 선생님들은 다들 친절하시고 좋았습니다. 과제는 선생님들 마다 다른데 공통으로 일주일에 두 편씩 에세이를 써야합니다. 그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 단어시험과 말하기, 쓰기 시험이 있어서 준비해야 하고 주로 멘투맨 시간에 개인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제 양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수업은 WRITING, SPEAKING, LISTENING, TOEIC SPEAKING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다른 수업들 보다 멘투맨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둘이 말하다 보니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수업준비는 주로 교재만 활용하는 편입니다.</p> |

| | |
|----------|---|
| Activity | <p>날씨 때문에 마지막 액티비티인 민도로 섬 필드트립이 취소돼서 진행한 Activity가 없습니다. 딱히 액티비티를 진행하지 않아도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액티비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녀온 사람들은 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섬 같은 경우에는 날씨 때문에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다른 액티비티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p>갔을 때 덥고 습했지만 호스텔이나 학교 모두 냉방이 잘 되기 때문에 평소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8월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정말 자주 오는데 비가 올 때면 트래픽이 정말 심해서 비오는 날 이동하는 경우에는 예상 소요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비가 우리나라와 달리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말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챙기거나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p> |
| 안전 | <p>항상 주위에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하셔서 주의를 기울여서인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험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금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돌아다닐 일은 없었습니다.</p> |
| 숙소 |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처음 호스텔 방에 들어갔을 때는 불만이었지만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통금 시간은 10시이고 늦게 들어가면 EOP를 위반했을 때처럼 보충 학습을 해야 합니다. 빨래는 아주머니가 일주일 내내 오후 9시 마다 받으러 오시고 대부분 다음 날 깔끔하게 접어서 봉투 안에 넣어 주셔서 빨래 걱정은 없었습니다. 호스텔에 C CAFE라고 해서 공부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보충 학습도 하고 저녁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먹거나 놀거나 합니다. 호스텔에서 가끔 벌레가 나오긴 하지만 필리핀 자체에 벌레가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로비에는 경찰과 스태프들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다들 친절하셔서 주말에 어디 이동을 하거나 예약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해주시고 한 달에 두 번 침구류 바꿔주십니다. 수업 간 시간에 청소도 자주 해주셔서 편했습니다.</p>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 <p>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호스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되는데 주로 한식이 나옵니다. 대부분 맛있었고 메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학교 주변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야시장도 있고 배달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꼭 호스텔 식당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 바로 앞에 호스텔이 있어서 통학은 편했고 시내에 나갈 때는 주로 그랩 택시나 지프니를 이용했습니다. 가끔 버스나 트라이시클도 타고 마닐라 투어 때는 전철도 이용했습니다. 학교가 마닐라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 741,350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생활비 | 약 50만원 | |
| | | |
| | | |
| | | |
| 합계 | 1240000 | |

5. 출국 전 준비사항

생활비는 넉넉하게 가져가는 걸 추천합니다. 물가가 싸고 식사가 제공되지만 생각보다 여러 곳의 MALL을 가게 되고, 사게 됩니다. 주말마다 꽤 멀리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교통비, 식비 등 지출이 많아집니다. 노트북은 무게가 무겁기만 하고 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액티비티를 하는 경우 트래픽 때문에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등 볼거리를 다운 받아가고 섬을 가거나 수영장에 갈 수 있으니 수영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 올 때쯤에는 선생님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다들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이니 한국에서 작은 간식이나 기념품 가져가시면 선물 드리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은 학교 규정 때문에 긴 옷만 챙겼는데 방과 후어나 주말에는 덥기 때문에 짧고 얇은 옷도 넉넉히 챙기고 지갑은 소매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작은 걸로 챙기는 게 보관하기도 쉽고 사용할 때 번거롭지 않습니다. 모기는 학교나 호스텔에는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버물리 정도만 챙겨도 될 것 같고 호스텔 방이 신발을 벗지 않고 생활하는 방이기 때문에 방에서 신을 편한 슬리퍼와 화장실, 욕실에서 신을 슬리퍼를 룸메들과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정말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돼서 좋습니다. 영어실력이 눈에 띄게 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일 영어로 대화하고 생활하다 보니 가기 전 보다는 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적응한 뒤로는 정말 4주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학연수는 대학 생활 중 단 한번만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기회였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함께 다녀온 우리 학교 사람들 모두 친해져서 한국에 와서도 가끔 다 함께 만나는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학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수업을 들었던 다른 학교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타지에서 한국인 대학생들과 함께 주말마다 투어를 다니고 수업도 함께 들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어학연수에 참여한 것이 대학교 입학 후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경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할 계획이고 필리핀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도 자주 연락하면서 지낼 계획입니다. 특히 다들 선생님들과 정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도 SNS나 카카오톡으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어학연수를 갈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BGC(BIG GROUP CLASS) 사람들과
선생님과 함께 단체사진



BGC선생님 생일 날 생일파티 사진



순천향대학교 여학생들 SM NORTH MALL구경



졸업식 날 순천향대학교 단체 사진



마닐라 투어 때 FORT SANTIAGO 앞에서 BGC단체사진



마닐라 투어 때 RIZAL PARK 앞에서 BGC단체사진